

트럼프 사위 이어 장남도 러시아 접촉

러시아 변호사와 사적 만남 NYT “힐러리 낙마 공작” 당사자 “대선과 관련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대선 기간에 러시아 측 인사를 별도로 만났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커넥션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러시아 측과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확인된 것도 처음이다.

회동이 이뤄진 시점은 공화당의 트럼프 대선 후보 지명 2주 이후인 지난해 6월 9일 로, 러시아 당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



트럼프 주니어 제러드 쿠슈너

는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가 맨해튼 트럼프타워를 방문했다. 베셀니츠카야는 러시아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법인 ‘마그니츠키 법안’ 반대론자로 유명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부패 스캔들을 폭로한 뒤 러시아 감옥에 수감됐다가 2009년 의심스러운 정황 속에 숨진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마

그니츠키 사망 사건 관련자들의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이 법안을 채택하자 러시아는 보복으로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 금지 내용 등을 담은 대미인권법을 제정할 바 있다.

베셀니츠카야와 트럼프 주니어가 회동한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도 함께했다. 쿠슈너와 매너포트는 ‘러시아 커넥션 의혹’과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인사다.

NYT는 이 만남이 러시아 측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면서 성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소한 ‘트럼프 캠프’에서 힐러리 후보를 꺾기 위해 러시아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려 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베셀니츠카야가 실제로 ‘힐

러리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NYT는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트럼프 주니어는 성명을 내고 “지인의 요청으로 만났을 뿐이며, 상대의 이름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CNN에 직접 보낸 성명에선 “수년간 미국 가정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다가 러시아 정부로 인해 중단된 러시아 아동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며 “당시는 이 문제가 대선 이슈도 아니었으며 후속 만남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주니어에 앞서 베셀니츠카야도 성명을 내고 10분가량 진행된 만남에서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정부 대표단과 관련된 시안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90 당 태종의 명신 두여회

두여회(杜如晦, 585-630)는 현재의 섬서성 장안현인 경조 두릉 출신으로 자는 극명이다. 대대로 복주와 수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한 관료가문 출신이다. 당 고조때 진왕부병참군이 되어 태종 이세민의 막료가 되었다. 방현령과 더불어 태종 재위 초기 조정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수양제 시절 현위 벼슬을 잠시 지낸 후 초야에 묻혀 지내다가 방현령의 천거로 이세민의 참모가 되었다. 학문이나 경륜은 높지 않지만 일을 결단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뛰어난 점을 높이 산 것이다. 황태자파와 세민의 세충 등 당왕조에 대한 핵심 반대세력을 진압하는데 세민의 공이 컸다. 이

도 없고 넘새도 없는 극치에 가깝다”라며 극찬하고 있다.

629년 태종은 방현령과 두여회에게 “공들은 재상이 되었으니, 마땅히 널리 능력 있는 자를 찾아 재능에 따라 임무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재상의 신본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부상서 두여회에게 구체적 인재 등용법을 주문했다. 태종은 “이부가 사람을 고르는 일을 보니 그저 구두시험에 있어 쓰는 말이니 기록의 서식만으로 사람을 평가해 그 덕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면 착한 사람은 얻을 수 있는가”라며 형식적 인재등용 방식을 비판했다. 두여회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漢나라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먼저 그 사람의 행위가 그 마을에 본보기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본 연후에 관리로

아베 내각 지지율 36% 최저 사학스캔들·선거 참패 원인

사학스캔들과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로 위기에 처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7~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6%로 전월(6월 17~18일) 조사 당시 49%에 비해 13% 포인트나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지율은 그가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을 발족시킨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2차 내각 발족 이후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 신문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한 것은 안보관련법 강행처리 직후인 2015년 9월의 41%였다.

반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지지율)은 52%(전달 4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신문 조사에서 비지지율이 지지율을 넘은 것은 2015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총리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49%(전월 48%)로 나타났다. 아베 정권에서 “장기 집권에 따른 교만함인 나오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학스캔들, 즉 아베 총리가 이사장을 하던 가계(加計)학원에 아베 정권이 수의학부 신설 특별 해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72%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타히르광장에서 9일(현지시간) 시민들이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 선언에 환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모술 탈환 작전에 돌입했던 이라크군은 이날 완전한 모술 탈환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IS 거점’ 모술 3년 만에 해방

이라크 정부 공식 선언

이라크 정부가 9일(현지시간)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최대 거점 도시인 모술 해방을 공식 선언했다.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날 군용기를 타고 모술에 도착해 IS를 상대로 한 승리를 선포하고 “모술은 해방됐다”고 발표했다. 알아바디 총리는 모술 도심에서 그동안 탈환 작전을 주도한 이라크군 주요 사령관들과 만나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검은색 군복 차림의 알아바디 총리는 이어 “영웅적 전사들과 이라크 국민이 이러한 대대적 승리를 거둔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알아바디 총리는 모술 도심에서 그동안 탈환 작전을 주도한 이라크군 주요 사령관들과 만나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이라크 정부 최고 지도자가 모술 공식 해방 선언은 이라크군이 모술 탈환 작전을 개시한 지 약 9개월, IS가 이 도시를 점령한 지 3년 만이다.

IS는 이번 패배로 이라크에서는 물론 인접국 시리아에서도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모술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들리는 등 전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전했다.

이라크 북부에 있는 모술은 한때 인구가 200만명 정도로, 바그다드에 이어 이라크 제2의 도시였다. 바그다드와 터키, 시리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인 데다 유전지대가 가까워 이라크의 ‘경제 수도’로 불렸다. IS는 2014년 6월10일 모술을 이틀 만에

가시 점령한 뒤 그달 29일 칼리프 국가를 수립한다고 선포했을 만큼 이 도시는 IS 세력의 핵심이자 절정을 상징했다. IS는 모술에서 자체 행정조직, 학교, 경찰서, 법원을 세우고 자체 화폐를 유통하는 등 실제 국가처럼 통치하면서 모술을 자신들이 추구하던 이슬람 초기의 이상향인 ‘칼리프 제국’의 전범으로 선포했다. IS 선전 조직은 모술 곳곳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주민의 모습을 다큐멘터리 형식 동영상으로 제작해 수차례 유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술 주민에게 세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뜯겼을 뿐 아니라 고대 유물 밀매, 은행 금고 탈취 등으로 조식 운영자금을 모았다. 중동·아시아의 다른 테러조직에 지금을 댄 IS의 ‘돈줄’이었던 모술을 이라크 정부가 사실상 완전 탈환을 선언하면서 IS는 조직의 존립과 위상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연합뉴스

탁월한 결단력...유능 인재 등용

에 고조는 그에게 천책상장(天策上將)이라는 준태자급 직위를 주고 크게 우대했다. 위기감이 커진 황태자 세력은 세민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 결과 측근인 방현령과 두여회가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해 결국 626년 유명한 현무문의 정변이 일어났다. 세민은 방현령, 두여회, 장순무기, 위지경 등 그의 보좌대원에게 권력투쟁에서 승리하고 부친 고조로부터 양위를 받아 제위에 올랐다. 위대한 정관성세가 시작되었다.

방현령과 두여회는 크게 중용되었다. 그는 병부상서로 승진하고 채국공에 봉해졌다. 628년 이부상서를 겸하였고 629년 우복야가 되어 관리 선발을 책임졌다. 당나라의 제도와 법령은 사실상 이 두사람이 만들었다. 궁궐의 규모에서 문물에 이르기까지 이 두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세상에서 그들을 방두(房杜)라고 부를 정도로 조정의 대를보았다. 방현령의 기획력과 두여회의 추진력이 정관 초기의 국정운영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방현령이 계획하고 두여회가 집행했다는 방모두단(房謀杜斷)의 고사가 탄생했다. 후세 사서에 이들의 협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방 두, 태종을 보좌해 정관의 치적을 이루었다. 후세에 이를 정치의 모범으로 삼았다. 공명정대한 처신이 한결같아 따로 물어볼 것이 없었다. 이는 소리

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 탓으로 당시 인재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얼굴표정이나 태도를 그럴 듯하게 위장한 교묘한 인사로 지식을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황제와 종신의 인재 격정이 당왕조의 튼튼한 반석이 되었다. 두여회는 유능한 인재를 뽑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인재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선발했다. 항상 모자라는 것처럼 인재선발에 임했다. 이에 따라 정관시대 유능한 인재가 넘쳐나게 되었다.

태종은 방현령과 국사를 논의할 때마다 말하기를 “두여회가 없으면 결정할 수 없다”며 두여회가 오면 그제서야 방현령의 계책을 썼다. 방두의 전기에 “세겨야 할 공로가 헤아릴 수 없으면서도 정작 말로 다할 수 없으니 더더욱 이를 정관의 현상(真相)이라 부르려다”고 기록되어 있다.

630년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결단력이 홀 흐르듯 하다고 세간의 존경을 받은 개국공신의 안타까운 죽음이였다.

그는 방현령, 장순무기, 위징과 함께 정관의 대표적 명신이다. 태종은 그의 공적을 높이 사 능연각 24인의 한명으로 선정했다. 후일 당 시대의 능력 있는 재상을 징송할 때는 방현령과 두여회를 추천한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원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기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천3백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65억 근린시설 스포츠타운 최적합
- ★ [토지] 광산구 송정역(KTX) 인근대로변 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관광호텔주변 카페거리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서구 풍암동 녹지지역 입자26,139㎡ 매매 평당7만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10억 조정가능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